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 공통된 주제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두 번째 참가자의 답안 1]

세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에는 아름다움이다.(가)는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한다.(나)는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한다.(다)는 르네상스 시대 궁정의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한다.하지만 세 제시문은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다.왜냐하면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특정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면서 많은 매화의 생명을 앗아가고 개체수 또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반면에 (나),(다)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는다.(나)는 사람의 힘으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갖춘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긍정적으로 여긴다.또한 (나)는 자연과 인위적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계획된 것으로 생각하여 감탄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다)는 르네상스 시대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남성보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이 때의 아름다움은 인위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다움이므로 인위적 아름다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름다움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 (가)는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가)는 문인작가들도 자신들의 인위적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서 이를 비판하고 본연의 모습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반면에 (나)는 아름다움에 있어서 필요미와 조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필요미는 너무 과하지 않게 필요한 것을 적절히 갖추는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에 조건이 되고,조화는 무량수전의 각 구성들 사이의 조화,또는 자연과의 조화들을 일컫는 것으로 이 역시 아름다움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된다.이와 달리,(다)는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아름다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다)는 자연스러움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꾸미지만 이가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될 때 우아함 즉, 아름다움이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참가자의 답안 1 침삭]

세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어는 아름다움이다.(가)는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한다.(나)는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한다.(다)는 르네상스 시대 궁정의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한다.하지만 세 제시문은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차이점을 보인다.

-> 이 학생은 각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어를 '아름다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제시문들에서 그런 주제어를 설정한 이유를 간단히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각 제시문들이 매화, 무량수전, 여성을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문항의 해설에서 '공통의 주제어'를 찾으면서 근거를 들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답안은 그 근거를 각각의 제시문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며 들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주장에는 '근거/전제'가 필요함을 절대 잊지 마시고 반드시 자신의 답안에서 이러한 논리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된 주제어인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난 뒤에 각 제시문의 비교기준이 2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기준들은 각각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와 '아름다움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제시문의 논리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서술로 보입니다.

->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두 번째 기준의 설정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기출 문항들을 잘 살펴 보면 지금까지 두 번째 기준은 첫 번째 기준에서 패거리로 묶인 두 입장을 다시 한번 나누는 작은 비교 기준을 설정해왔습니다.** 지금 본인의 답안은 두 번째 기준 역시도 첫 번째 비교 기준과 마찬가지로 세 제시문 모두를 포괄하는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자의적 기준 설정' 혹은 '중복된 서술'이 나올 가능성이 큼니다.** 실제 답안에서의 구체적 확인은 뒤이은 답안을 보면서 확인해보기로 하죠.

먼저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다.왜냐하면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특정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면서 많은 매화의 생명을 앗아가고 개체수 또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반면에 (나),(다)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는다.(나)는 사람의 힘으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갖춘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긍정적으로 여긴다.또한 (나)는 자연과 인위적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계획된 것으로 생각하여 감탄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다)는 르네상스 시대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남성보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이 때의 아름다움은 인위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다움이므로 인위적 아름다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 첫 번째 비교 기준의 설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고 서술상 제시문의 이해가 크게 어긋난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두 번째 비교 기준까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움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 (가)는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가)는 문인작가들도 자신들의 인위적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서 이를 비판하고 본연의

모습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반면에 (내)는 아름다움에 있어서 필요미와 조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필요미는 너무 과하지 않게 필요한 것을 적절히 갖추는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에 조건이 되고,조화는 무량수전의 각 구성들 사이의 조화,또는 자연과의 조화들을 일컫는 것으로 이 역시 아름다움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된다.이와 달리,(태)는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아름다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태)는 자연스러움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꾸미지만 이가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될 때 우아함 즉, 아름다움이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두 번째 비교기준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짠 비교 기준을 가지고 논리 구조를 형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기준 1]

인위적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	>	아름다움
X (비판) : 아름다움 = 자연	>	매화
O (긍정) : 아름다움 = 자연 + 인위	>	무량수전
O (긍정) : 아름다움 = 자연 + 인위	>	여성의 우아함

[비교 기준 2]

아름다움에 필요한 조건	>	아름다움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것	>	매화
필요미와의 조화	>	무량수전
티를 내지 않는 자연스러움	>	여성의 우아함

-> 그리고 제가 제시할 논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번 보고나서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비교기준 1 + 2]

인위적 계산 / 개입의 구체적 형태	아름다움의 근원	>	아름다움
X	자연	>	매화
자연과의 조화	자연 + 인위적 계산 / 개입	>	무량수전
인위성이 자연미를 만드는 역설적 합일	자연 + 인위적 계산 / 개입	>	여성의 우아함

-> 둘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할까요? 우선 이에 대한 제 첫 번째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출문항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연세대학교에 출제된 삼자비교 형태의 제시문들은 이런 형태를 가졌습니다.

-> 주제어의 '정의'에서 어떤 A라는 요소가 부재한 하나의 제시문과 존재하는 두 개의 제시문이 제시되고, A라는 요소가 존재하는 두 제시문 사이에서 A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시각차가 제시되는 식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기출문제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삼자 비교 제시문의 형태]

A의 형태 차이 / 바라보는 시각 차이	>	A의 여부	>	주제어
[언급할 것이 없음]	>	X	>	주제어
'x'이라는 시각	>	O	>	
'~x'이라는 시각	>	O	>	

-> 그러면 이제 왜 본인이 짠 비교기준에 비해서 이러한 비교기준이 더 주효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단순히 2개의 비교기준을 병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제시문 안의 완결된 논리 구조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고 제시문을 나누어 서술해야만 한다는 단점이 먼저 존재합니다. 제시문을 나누어 서술하게 되면 우선 각 제시문의 '완전한 결론'을 어디에 작성해야 할지가 모호해집니다. 각 제시문의 완전한 결론과 논리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답안에 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두 번째 비교 기준은 사실 제가 작성한 두 번째 비교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교기준을 병렬적으로 설정하게 되면 (가)를 서술할 때 첫 번째 비교 기준에서 작성한 (가)의 이야기와 의미상 중복되는 이야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진답니다.

-> 작성하신 답안을 보더라도 드러나죠. (가)가 인위적 아름다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펴고 있다는 말과 본연의 모습이 아름다움의 조건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형태로 포장되어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둘을 첫 번째 기준에 묶어서 써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 또한 '비교'의 본질을 놓고 보더라도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논술에서 비교를 하라는 요구는 '기준'에 대한 '상반'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조건'에 대해 각 제시문들의 입장을 나열한 것이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답안을 쓴 학생은 제시문 각각에 대해 나름대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자신의 이해를 잘 담아낼 수 있는 답안의 논리 구조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이렇습니다. 해당 비교 문항에 대한 답안은 각 제시문의 완전한 결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 구조를 서술했다가 보다는, 각 제시문들에게 '자신이 설정한 비교기준'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느낌입니다. (가)의 주장 및 결론은 '미적 인식의 대상물은 인위성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작성하신 답안에는 이를 병렬적으로 서술하시다 보니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 서술에 있어서 '논리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 점은 반드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가자의 답안 2]

두 사진 속 다이아몬드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이아몬드 원석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가공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심미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심미적 관점에서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다이아몬드의 가공은 인위적 노력을 통해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단지 하나의 돌맹이로 보일 수 있으나 이를 정교하게 가공해서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아름다움이 더해지기 때문에 가공된 모습이다.

둘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원석이 가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좀더 아름다운 것을 원할 것이고 앞에서 말했듯이 가공을 통해 물방울 모양이 된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 따라서 가격 또한 비싸질 것이고, 이를 파는 사람이 가공 없이 원석 그대로를 파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가)는 미의 기준은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것으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두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두 가지 비판받을 수 있다.

첫째, (가)는 인위적인 변화를 통해 아름다움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각자의 미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미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인위적으로 가공했을 때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즉, 무조건 본래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가)는 가공된 것이 왜 더 비싼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양이 인위적으로 변화된 매화나 다이아몬드나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인위적인 것이 미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두번째 참가자의 답안 2 - 첨삭]

두 사진 속 다이아몬드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면 다이아몬드 원석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가공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심미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 두 번째 참가자는 다양한 관점을 해석하는 (라)에 ‘가공’이라는 요소를 들여와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관점 2개’를 설정했고 이를 두괄식으로 살려 서술했습니다. 문제 2가 요구하고 있는 제시문 (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라는 하나의 요구사항과 이를 토대로 제시문 (가)를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앞선 첨삭에서도 말씀 드린 바 있지만, 워낙에 중요한 사항이니 한번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	(분석) ->	(라)	(평가) ->	(가)
--------	------------	-----	------------	-----

-> (라)에서 ‘가공’ 정도의 항을 설정한 것은 크게 문제 삼을만한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합격자 답안들에서도 ‘가공’이라는 새로운 항을 가져와 답안을 구성한 경우를 더러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첨삭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에 앞서 본질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구성되었으니 이 의도에 맞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제시문은 어떤 입장이나 주장, 의견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상이 되는 제시문은 단지 ‘평가/분석하는 입장의 논리 틀’에 맞게 어떤 형태로든 재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저는 엄격한 입장에서 보자면 (라)에 ‘가공’이라는 항을 들여온 것 자체가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다른 기출문항의 이해에는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보아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평가나 분석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되는 제시문은 그 자체로 어떤 ‘주장’이나 ‘논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발문에는 이미 출제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문항을 구성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생각해주세요.

-> 여기서 저는 이 관점들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첨삭에서도 말씀드렸듯, **그 관점이 어떻게 ‘추출되었는지’에 대한 사고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프로세스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관점이 적절히 추출되었다면 이에 따른 논리 구조의 형성으로 답안을 적절히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심미적 관점에서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다이아몬드의 가공은 인위적 노력을 통해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단지 하나의 돌맹이로 보일 수 있거나 이를 정교하게 가공해서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아름다움이 더해지기 때문에 가공된 모습이다.

-> 그 자체의 정보보다는 이 점을 점검해주세요. 이 ‘**심미적 관점**’이 (나), (다)의 아름다움의 요건으로 ‘**인위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추출된 관점이라면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제시문의 논의에 철저히 입각해 관점을 뽑아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반드시 스스로 점검해주세요.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서술에 비문이 조금 드러난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둘째,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원석이 가공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사람들은 좀더 아름다운 것을 원할 것이고 앞에서 말했듯이 가공을 통해 물방울 모양이 된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따라서 가격 또한 비싸질 것이고,이를 파는 사람이 가공 없이 원석 그대로를 파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 역시, 이 경제적 관점이 (가)의 비판받는 입장인 ‘문인화가와 상인’으로부터 추출된 답안이라면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이 점을 먼저 점검해주세요.

-> 이 답안은 두 개의 관점을 ‘인과관계’의 논리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포착하여 쓴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앞서 말한 심미적 관점이 결국 경제적 관점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해 준 것은 제가 첫 번째 참가자의 답안의 첨삭에서도 말씀드렸던 ‘비교기준’의 ‘논리 구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분의 1번 답안에서는 지적했던 ‘병렬적 비교 구도 설정의 한계’에 대한 해답이 2번 답안에 드러나네요. 비교 기준 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정해주는 것은 단순한 비교 기준 및 관점의 나열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 하나만 첨언하자면, 두 관점이 이미 인과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굳이 이런 ‘병렬적 구조’를 가지고 글을 작성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선 1번 문항의 첨삭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용상 인과와 같은 ‘논리 관계’를 가진 것을 ‘병렬’의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면 그 함의와 논지의 전개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즉, 이 두 관점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할 때 그 ‘논리 구조’를 더 명확히 드러냈으면 어떨까 합니다.

(개)는 미의 기준은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것으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위의 두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두 가지 비판받을 수 있다.

-> 두 관점에 따른 분석을 통한 (라)를 통해 (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두 관점에 따라 두 비판을 각각 서술하고자 하는 시도는 유효합니다. 두 관점 간의 논리적 관계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첫째,(개)는 인위적인 변화를 통해 아름다움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각자의 미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따라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 도 있지만,미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인위적으로 가공했을 때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즉,무조건 본래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개)는 가공된 것이 왜 더 비싼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된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모양이 인위적으로 변화된 매화나 다이아몬드나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다.따라서 무조건 인위적인 것이 미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역시 두 관점 간의 인과 관계가 무난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병렬’의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심미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이라는 두 관점이 적절한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듯합니다.

-> 다만 '심미적 관점'에 대한 서술에서 '미의 기준의 상대성'을 언급한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미적 관점은 '인위성'이 개입된 것이 심미적 가치를 가진다는 논지였습니다만, 여기에 '미의 상대성'을 새롭게 추가한다면,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입장이 '인위성이 개입된 아름다움'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하는 형식으로 근거/전제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논리의 명확성을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총평]

참가자께서는 깔끔한 병렬식 구성의 답안을 선호하시는 듯합니다. 답안에서 그런 면이 물씬 풍겨 나오네요. 병렬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절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병렬식 구성은 분명 그 구성상 깔끔하게 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채점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채점자에게 자신이 쓴 답안의 포인트들을 명료히 드러낼 수 있게 한다는 강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병렬식 구성이 자칫 가져올 수 있는 한계를 반드시 직시하셔야 할 겁니다. 병렬식 구성은 논리적인 인과관계나 결론과 근거, 요건과 효과와 같은 '직렬적 논리의 흐름'을 답안에서 간과할 가능성이 다소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남은 기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승을 빕니다. ^^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